The Economy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5. 12. 17

11월 미국 고용: 금리 인하를 지지했던 고용

경제/중국 | **백관열** | kyb1006@ls-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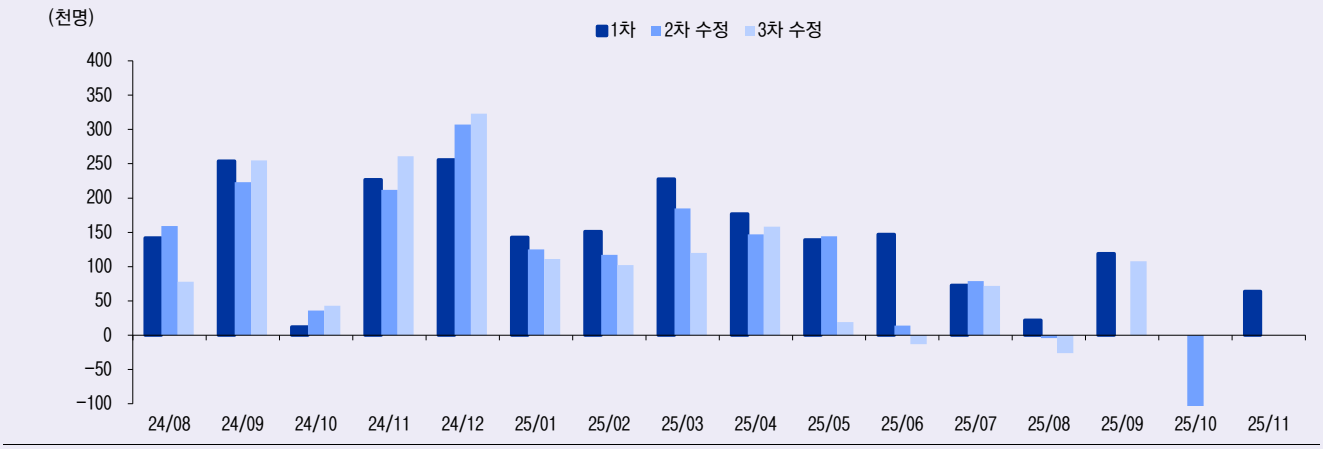
11월 비농업고용 +6.4만명, 실업률 4.6%

셧다운 여파로 발표가 지연되거나 일정이 취소됐던 미국 고용보고서가 정상적으로 공개되기 시작. 미국의 11월 비농업고용은 예상치(+5만 명)를 상회한 6.4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낮은 레벨을 유지. 실업률은 4.6%로 예상치를 상회하며 약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용 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 확대. 시간당 임금 증가율도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12월 금리 인하 결정이 정당했음을 뒷받침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부 고용이 10월에 -15.7만 명, 11월에 -0.5만 명 감소하면서 셧다운 여파 확인. 그나마 민간 고용이 전체 고용을 주도했으나, 산업별 구성을 확인하면 낙관하기엔 제한적. 11월에도 고용 증가는 교육/의료 서비스(+6.5만 명)와 같은 저임금 서비스 업종이 주도했으며, 정보(-0.4만 명), 금융(-2만 명), 전문기업(-1.2만 명) 등 고임금 서비스 업종은 부진한 흐름 지속. 고용의 양적 개선은 확인됐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임금 둔화와 맞물리면서 소비 둔화 리스크까지 누적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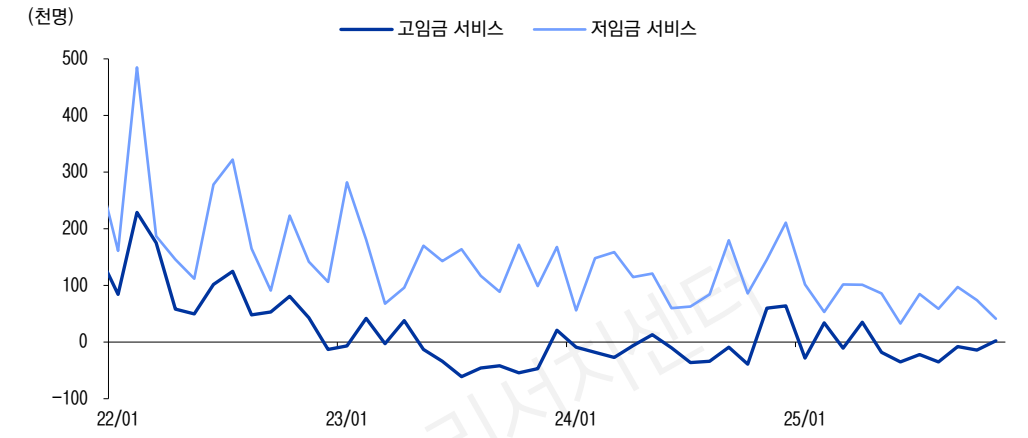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2026년 경기를 낙관한 만큼 침체와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으나 미국의 고용이 bottom out 했다는 신호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고용 둔화 리스크에 대한 경계는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현재 미국 고용지표의 흐름은 여전히 고용 시장의 점진적인 냉각을 시사하며, 2026년에도 금융 여건이 완화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

그림1 **11 월 비농업고용 +6.4 만 명. 점진적인 둔화 지속**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그나마 저임금 서비스가 11 월 고용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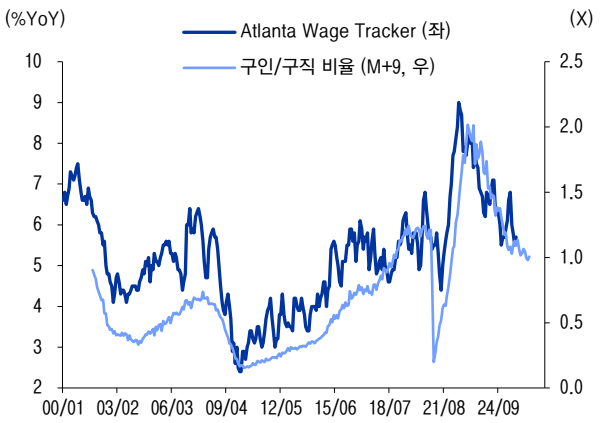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시간당 평균 임금 둔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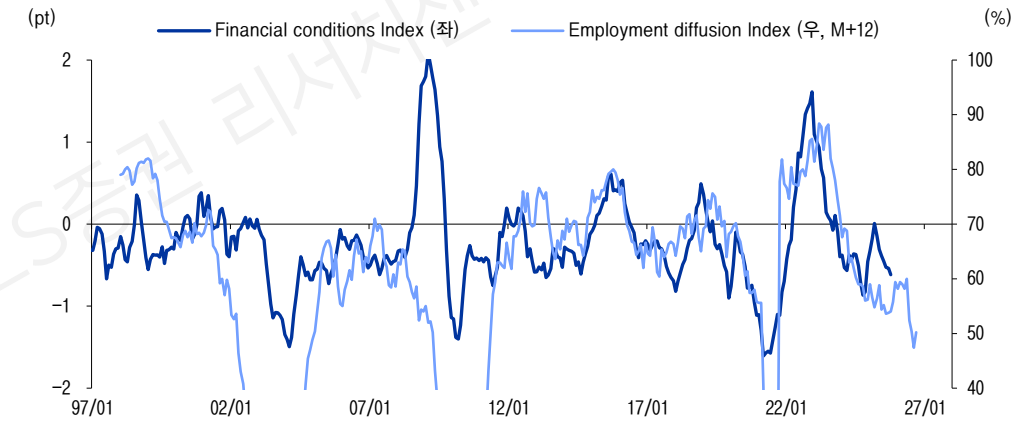
자료: CEIC,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임금 협상력 약화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2026 년에도 완화적일 금융 환경을 암시하는 미국의 고용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백관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